

유아 인성교육의 방향

요즘 세태가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그릇된 인성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새로 편성된 누리과정에서도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에서 유아들의 인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아교육기관인 '리틀소시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실제 교육방법 소개에 앞서 유아 인성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짚어본다.

자료제공 리틀소시에 교육연구팀 참고자료 유치원 기본과정 내실화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교과부, 2012)
정리 최수영 기자

■ 유아 인성교육이란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성품'이며, 교육적인 면에서 인성은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인성교육이란 좋은 이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노력을 뜻한다.

이처럼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성교육은 유아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생활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체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아의 모든 일과와 활동 속에서 연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유아 인성교육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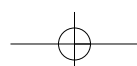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적이고 유능한 능력이 발휘될 때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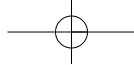
하에 미래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목적을 정의할 수 있다.

-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 함양
 -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상황에 맞게 감정 조절
 - 긍정적 자아감 형성
 -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배려
 -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소양 함양
 -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정서적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배양
- ⇒ 자신에 대한 이해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 더불어 살기 위한 능력 배양

■ 유아 인성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역할

교과부에서 유아 인성교육의 덕목으로 제시한 것은 '배려, 존중, 협력, 나눔, 질서, 효'이고,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 인성교육 10대 덕목으로 '존중, 질서, 협동, 예의, 자주, 책임, 끈기, 도전, 성실, 공정'을 제시하는 등 연구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기본 방향과 맥락은 같다.





유아 교사는 유아들의 인성을 이끌어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분위기의 교실을 운영하고, 올바른 인성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리틀소시에의 정서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유아들에게 정서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좋은 습관 형성은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아들에게는 외국어, 숫자, 한글 등의 인지적 자극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바로 알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은 발달적으로 적합한 즐겁고 신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서를 표현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학습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올바른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멋진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을 다진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인성발달〉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진정한 인성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동 발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① 언어라는 수단으로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언어로 잘 전달할 수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적응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 ② 언어 사용으로 인해 정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특히 감정에 대해서 타인과의 의사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서의 원인이나 그 영향, 정서의 통제 방법, 타인의 정서 등 많은 것을 알게 된다.
- ③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감정의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면 고조된 감정이 일단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정을 직접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출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서에 수반되는 행동 가운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원장/교사/부모

숲이, 놀이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가정연계

있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정서의 사회화가 필수적이다.

〈정서의 사회화〉

정서의 사회화는 집단생활 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나 문화에서 인정하는 정서의 표출 방법이나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예를 들어, 집단생활에서 작은 일에도 과장되게 울거나 짜증을 내면 또래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의 반복에 의해 아이들은 감정의 표현방식을 바꾸어나간다. 또한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워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정서의 사회화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된다. 그러므로 교사나 엄마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보다 풍부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아이와의 밀접한 관계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성향을 표현하게 하여, 전체적인 발달적 특징뿐 아니라 개별적인 특징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

〈정서교육 사례 - 화난 마음 표현하기〉

화난 표정 그림을 보며, 직접 표정을 지어본다. 이때 어떤 아이는 “나는 화난 적이 없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얼굴을 잔뜩 찡그리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블록에 화난 얼굴을 붙인 후 발로 뺨~차고, 팔로 뺨~치며 날려버린다. 화난 마음을 날려버린 후 아이들의 표정은 변해 있다. ☆

리틀소시에에는 24개월~6세를 위한 연령 및 발달과정별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발달단계에 따른 정서교육에 중점을 두고서, 즐거운 놀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미래의 리더를 키운다.

‘감정, 소유, 배려, 행복, 정직, 보람’ 등의 중점주제를 가지고 매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다음 호부터 플리시스를 통해 교육의 실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